

비지정 사찰문화재 파악·보호 시급



◁전남강진군 한 사찰의 비지정문화재인 부도. 공사현장의 석재 사이에서 위태롭게 서 있다.



◁11월 7일 '비지정 개인소장 문화재 공개 활성화' 세미나 현장.

1999~2002년 46건 도난... 모두 '비지정' 산간벽지 위치·유통 용이해 절취 표적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정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11월 7일 '비지정 개인소장 문화재 공개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비지정문화재 보존방안 마련에 나섰다. 또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에 이어 2004년부터는 문중·서원·향교를 중심으로 5년간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현황 파악 및 보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 때문에 사찰의 비지정문화재도 도난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지정만 되지 않았을 뿐 가치는 문화재가 많고,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절취 후 유통이 용이하며, 산간벽지에 위치해 있어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조계종 총무원이 집계하고 있는 도난 사찰문화재 46건이 모두 비지정문화재였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도난을 방지하고,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 도

난문화재의 유통을 어렵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문화재청과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탁연)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사찰문화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전라북도 지역 조사에서는 조사 전 기초 자료보다 1100여점 많은 문화재가 조사됐고, 강원도에서 조사된 문화재중 다수는 현재 시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한 상태다. 또 문화재청은 내년부터 문중·서원·향교 등의 비지정문화재로 일제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찰문화재 일제조사를 실시해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면조사는 이뤄지기 어렵다. 문화재=재화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개인소장자들이 도난 우려 등으로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지정 개인소장 문화재 공개 활성화' 세미나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용이 문화재위원회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전환과 개인소장자들의 적극적 자제에 힘입어 그 공개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가 단순한 개인의 재화가지로서가 아닌 공공재로 인식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인경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위원회 운영위원은 "기증자의 사회적 명예뿐만 아니라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 숨어있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보상받은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개인소장 문화재 기탁 관리 센터 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며 "예산 책정을 위해서는 기획예산처 등 협조는 부·처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나"며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개인소장 공개 활성화 위해 금전 보상 문화재 기탁관리센터 건립 지원 필요



탑(2)

일에 수출한 백제 목탑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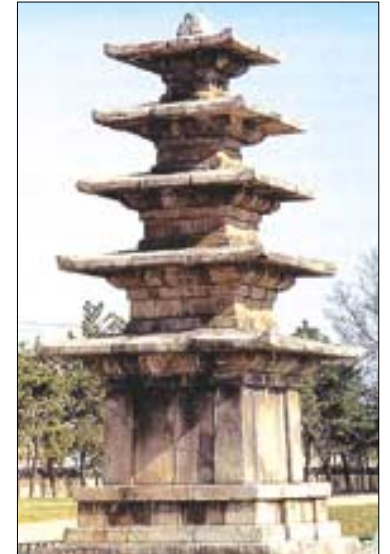
목탑을 세우는 기술은 삼국 가운데 백제가 단연 뛰어났다. 백제는 신라의 황룡사 9층목탑을 조성할 때 석공예 기술자 아비지(阿非知)를 파견하였고, 또한 일본에도 588년 백제의 기술자인 노반공(露盤工), 조사공(造寺工), 조와공(造瓦工), 화공(造工)을 보냈다는 기록이 <일본서기>에 전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백제에는 목탑이 한 점도 남아 있지 않다. 심조석과 주조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목탑지만 남아 있는데, 기록이나 목탑지반으로 백제의 화려한 영

웅은 완만한 경사로 얇게 좌우로 활짝 펼쳐진 형상이다. 이러한 조형은 당시로서는 고난이도의 건축구조인 다층의 목조 건물을 세우는 공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목재를 작게 함으로써 위에서 짓누르는 무게를 하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높이와 지붕을 살려 위용을 과시하면서 목재를 줄여 안전을 도모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백제의 노하우인 것이다. 신라에서 황룡사 9층목탑을 건립할 때 백제의 기술자를 초청한 것도 이러한



◁백제의 기술로 지어진 호류지 5층탑(왼쪽)과 백제 목탑의 이미지가 남아 있는 정림사지 5층석탑.



일본 서기에 노반공·조사공·화공 초청 기록 호류지 5층목탑, 정림사지 5층 석탑과 유사

화를 떠올리게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다 행스러운 것은 일본 나라시대의 목탑 가운데 백제 목탑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탑인 나라의 호류지(法隆寺) 5층탑이다. 일본에서는 탑의 층수를 층이 아니라 층으로 세기 때문에 5층탑이 아니라 5중탑으로 표기한다. 어떤 이는 지붕이 여섯 개인데 왜 5중탑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1층의 지붕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붕이 이중인 층은 1층이다. 더군다나 아래의 지붕은 후대에 덧붙인 것이므로 이것을 빼고 보아야 백제 탑의 모습이 분명해진다.

호류지 5중탑은 1층의 석조 기단에 5층의 목조건물이 서있고, 건물 중심에는 찰주가 솟아 상륜부를 이루고 있다. 2층에서 5층까지의 건물을 보면, 목재는 잘록하고 지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호류지 5중탑과 같은 탑을 정작 백제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목탑은 모두 없어져 비교할 수 없지만 석탑인 정림사지 5층석탑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정림사지 5층석탑은 호류지 5중탑처럼 목재가 잘록하고 지붕이 얇고 길게 펼친 형상을 취하고 있다. 1층의 벽체가 육중한 탑을 받치고 있고, 2층 이상의 벽체는 잘록하고 지붕은 마치 새의 날개처럼 좌우로 시원하게 뻗어 우아한 기품을 자아내고 있다. 목조로 된 호류지 5중탑을 석조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정림사지 5층석탑이 되는 것이다. 정림사지 5층석탑은 비록 돌로 만들었지만 백제시대 목탑의 이미지가 충실히 남아 있는 문화재로서 건축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수덕사 목조삼세불좌상 문화재청, 보물로 지정

충남 수덕사 목조삼세불좌상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덕사 목조삼세불좌상을 보물 제1381호로 지정한다고 11월 11일 밝혔다.

수덕사 목조삼세불좌상 일괄은 수덕사 증흥조인 민공(愍公)선사가 남원 '귀정사(歸淨寺)'에서 이운 봉안했다고 알려진 불상으로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약사불(藥師佛)·아미타불(阿彌陀佛)이 한조를 이룬다. 이 목조삼세불좌상은 지난 3월 개금불사를 하면서 조성기가 발견돼,



◁보물 제1381호로 지정된 수덕사 목조삼세불좌상.

1639년 만해산 풍곡사 대웅전의 석가존상이었으며 수연비구를 비롯한 7명의 화원들이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보물에는 불상 3구 이외에 전적루와 복식 등의 복장유물과 대화수 수미단도 포함돼 있다.

오유진 기자

日, 사명당 사적연구회 발족

일본 도쿄에서 사명당의 사상과 업적을 연구하는 '사명당 사적연구회'가 11월 10일 발족했다.

이 연구회는 임진왜란의 역사와 조선통사(通史)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명당에 관심을 갖게된 키타지마 만지(교리츠 여자대학) 교수, 나카오 히로시(교토조형 예술대학) 교수, 누키이 마사유키(나고야 외국어대학)교수 등을 주축으로 설립됐다. '사명당 사적연구회'는 사명당 사적과 과거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조사·연구를 통해 민족을 초월한 공통인식을 확립하고, 한일 양국 시민간의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사명당기념사업회(회장 오재희)와 협력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진 기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조성불사 권선문

비로자나불 대작불사 발원

권선안내문

귀의 상보하옵고

소납 산승은 40여년 동안 수행하면서 대작불사와 포교활동에 전념하면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석조불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1000일 기도중에 부처님 진신 사리를 받아서 큰 환희심으로 대작불사에 큰서원을 세워서, 지극한 신심으로 비로자나불 석조불상 조성불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다함께 동참하셔서 이번 대작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한마음 크게 내시어 큰 공덕 지으시고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인연공덕으로 하시는 일 마다 소원성취 하사옵시고 세세생생에 성불 하옵시길 향피워 발원 드리옵니다.

이번 덕왕사불사에 동참하여 주시는 선남선녀 사외제위 여러분에게는 고미우신 마음을 비각에 새겨 영원히 빛나게 하겠습니다

- 설판불사 (100만원 이상)
- 가족동참불사 (30만원)
- 동참불사 (10만원) 또한 범종불사도 함께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참금 계좌번호>

· 농 협 729-02-117074 · 국민은행 622-24-0064-982

· 우체국 700435-02-005878 ※ 예금주: 유재하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녹남 455-5번지

일출산 덕왕사 주지 **유용각(만덕)** 합장

전화 054)853-3855, 854-3855 휴대폰 011-522-1237

육법등 (六法燈)

육법등목록 제 2002-33243호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영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전등을 위한 49개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소: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031)541-1417 / 팩스: 031)541-1419

충남 및 대리점 모집